

# 차량 번호판 교체비 아끼려 원정길...지역민 혼란 가중

### 들뜨고 벗겨지는 '신형 필름식' 무상교체 종료...오늘부터 유료 광주·전남 지자체별 2만~5만원대...“계약 달라 가격 강제 못해”

전남 각 지자체가 '들뜨고 벗겨지는' 등 문제가 빈발해 논란이 됐던 신형 필름식 번호판(사진) 교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교체 가격이 2만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구매 당시 딜러를 통해 전달 받는 등 타 지역에서 차량등록을 한 운전자들은 주 생활권 지역에서 무상 교체가 불가능해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지자체별 교체 비용을 따져가며 '원정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1일부터는 무상 교체 보증 기간인 5년이 지나 유상 교체를 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0일 광주·전남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1일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이 도입

된 이후 벗겨짐, 들뜸, 터짐,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번호판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최초 발급일로부터 4년간 무상교체가 가능하며,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발급받은 번호판의 경우 5년간 무상 교체가 가능하다.

무상 교체 대상은 등록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교체하는 경우에 한하며, 타 지역에서 등록된 차량은 유상 교체가 원칙이다.

유상 교체 시 전남 각 지자체의 번호판 가격은 2만 5500원에서 최대 5만 9000원까지 차이가 났으며 설치를 해주지 않는 곳도, 공임비만을 추가로 받는 곳도 있었다.



광주에서 앞·뒤 번호판을 모두 교체하는 데에는 2만 5500원의 번호판 제작비를 받고 있다.

반면 해남군에서는 똑같이 앞·뒤 번호판을 교체하는 데 5만 9000원을 받고 있으며, 곡성군에서는 4만 4000원, 화순군에서는 4만 2000원을 받고 있다.

또 강진군 4만 2000원, 함평군 3만 9000원, 장흥군 3만 7000원, 나주시 3만 2000원 등 비용이 제각각이었다.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목포시는 2만 8800원으로 책정돼있으나 관외 차량의 경우 5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순천시 2만 9700원을 받고 있지만 별도의 테두리 부품이 필요한 비봉인 번호판의 경우 2만원을 더해 4만

9700원을 받는다.

지자체마다 번호판을 교체해주면서 받는 '공임비'도 제각각이다. 광주시가 5개 자치구에 내린 안내 사항에 공임비 국산차 5000원, 외제차 1만원이다.

광주시 동구의 경우 직접 장비를 빌려주고 셀프 교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동구가 교체를 해줄 경우 공임비 5000원이 추가된다.

광주시 남구에서는 번호판 부착 부위의 상태에 따라 공임비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비교적 양호한 신형 차량에 설치하려면 공임비를 2000원만 받고 있지만, 오래돼 녹이 슬어 있는 차량이라면 제거 작업 등을 이유로 5000원의 공임비를 받는 식이다.

담양군은 아예 무상 교체 기간 내라면 관외 번호판까지 무상교체를 해 주고 있지만, 공임비로 관내 차량은 1만 5000원, 관외 차량은 2만원을 받고 있다. 해남군도 공임비를 최대 1만원까지 받고 있다.

나주·순천시와 곡성군에서는 공임비를 따로 받지 않고 있다. 함평군의 경우 번호판을 나눠주지만

하고 직접 설치해주지 않으며, 차주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공임비를 안 받고 도와주도 가능한 공업사 이용을 권장하는 식이다.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번호판을 제작하는 곳이 민간 업체고, 지자체별로 계약을 다르게 맺고 있어 시군에서 일정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하자보증은 생산자가 보증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가격 등에 대해 관여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번호판 제작 업체 관계자는 "가격에 대한 별다른 지침이 없고 원가에서 각 업체마다 추가로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하는 구조다 보니 광주처럼 하루 기준 200대 대상으로 교체하는 곳과 하루 3~4대만 교체하는 전남 시·군의 가격이 같을 수가 없다"며 "인건비 차원에서 다 각 업체의 사정에 맞춰서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더위 먹으면 안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30일 광주시 북구 직원들이 충효동의 한 축사에서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소나기도 못 식히는 '가마솥 더위'

### 광주·전남 오늘 돌풍·천둥 동반 5~40mm 비 예보

광주 지역에 연일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고 1일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평년(최저 19~21도, 최고 25~29도)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아침최저기온은 22~24도, 낮최고기온은 30~35도, 2일 아침최저기온은 23~25도, 낮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상된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1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광주와 전남에는 5~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도 함께 나타나겠다.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폭염 특보도 지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나주·장성·화순·보성·광양·영암 폭염 주의보를 폭염 경보로 상황 발표했다.

광주와 전남 10개 시·군(나주·장성·화순·보성·광양·영암·순천·광양·구례·곡성)에 폭염경보가, 고흥·여수·장흥·강진·해남·완도·무안·함평·영광·목포·

신안·진도에는 폭염주의보가 유지 중이다.

30일 오후 5시 기준 일최고체감온도는 곡성 석곡 35.4도, 담양 봉산 35.3도, 완도·구례·광주 조산대 35.1도, 무안 해제 34.9도, 광양읍 34.5도, 영암 학산 34.4도, 화순 34.3도, 장성 34.2도 등으로 나타났다.

완도, 해남, 진도에서는 6월 일최고기온 최고값을 경신했다. 30일 오후 5시 기준 완도는 34.2도, 해남은 33.6도, 진도는 31.2도로 1위를 기록했다. 강진은 32.9도로 3위, 흑산도는 29.1도 영광은 33.1도로 4위를 갈아치웠다.

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 내리는 곳에서 일시적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며 "은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영유아·노약자·임산부·만성질환자는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수시로 수분 섭취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귀어 준비는 전남귀어학교에서

### 도, 13기 교육생 18일까지 모집

경험해보지 않은 어촌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지난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어촌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예비 귀어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 13기 전남귀어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

귀어학교는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어업 입문 교육 프로그램. 만 18세 이상부터 만 65세 까지 귀어하고 싶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어촌에 거주하는 비어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교육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희망지는 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이메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청 및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누리집(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되면 오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8주간 강진지원을 비롯, 실습 어가에서 현장체류형 실습교육을 무상으로 받게 된다. 수료자들에게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 수수료 일부 감면 및 귀어 후 귀어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시 기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예비 귀어인들이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젊은 시선으로 전남 관광상품 만들어보세요

### 도, 청춘어람 육성사업 참가자 모집...개발비 500만원 등 지원

젊고 참신한 시선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보세요.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관광재단은 '2025 청춘어람 육성사업' 제 5기 참가자를 오는 7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청춘어람 육성사업'은 만 18세부터 45세 이하로 전남에 거주하거나 전남으로 전입하려는 청년들에게 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여행코스, 미식상품, 기념품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직접 기획·개발해보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실전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1년 시작된 뒤 전남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위한 실무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가자에게는 1인당 평균 500만 원의 상품 개발비와 함께 전문가 멘토링·시장성 테스트·콘텐츠 검증 등 사업화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과 우수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된다.

관광재단은 지난 4~5월 진행된 '섬·해양 관광 콘텐츠 발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 20건을 연계, 실효성 높은 상품을 기획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5개 팀, 49명이 참여해 ▲고흥 유자활용 건강 디저트 '유자 샌드' ▲무안 갯벌 생태자원을 테마로 '갯벌 생태 맨발 걷기 축제' ▲여수의 섬과 해양자원을 관광기념품으로 재해석한 '섬 생태 어런' 등의 아이디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경험해보지 않은 어촌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지난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어촌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예비 귀어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 13기 전남귀어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

귀어학교는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어업 입문 교육 프로그램. 만 18세 이상부터 만 65세 까지 귀어하고 싶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어촌에 거주하는 비어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교육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광주문화신탁**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